

우리는 모두 甲이자 乙이다



김정석
건설경제신문 정경부 차장

지난 달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는 종합건설사 외주 담당자들과 전문건설사 경영자들의 조출한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상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로 관련 단체와 <건설경제신문>이 마련했다.

계획대로 이날 논의는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눈치를 보느라 이야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법도 했지만, 머뭇거림은 없었다. 시대가 변한 탓도 있겠지만, 생존의 갈림길에 선 건설경기 탓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먼저 해외공사 경험이 많다는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외국 건설현장에서 외국 원도급업체에는 ‘레터’를 수도 없이 날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하도급사는 원도급사 눈치가 보여서 어디 한통이라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국내 원·하도급 문화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한 종합건설사 직원은 이에 대해 레터도 날리고 꼭 서류를 남기라고 충고했다. 전문건설사에 대금을 정산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도급사 측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도 인정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하도급 측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최저가낙찰제는 물론이고 원하는 하도급 금액이 나올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제값을 주고 싶어도 덤핑으로 치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종합건설사 외주 담당자는 하도급사들의 의견을 물어 적정금액을 책정했는데 막상 입찰에서는 하도급사들이



이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고 전했다. 결국, 당초 적정 금액이라고 기안했던 담당자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소통과 신뢰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종합건설사의 건설현장 소장이 자주 바뀌거나 나이가 어려진 것도 소통을 막는 또 다른 이유라는 말도 나왔다. 원·하도급 차이에 세대 차이까지 더해진 셈이다. 젊고 경험 없는 현장소장이 '베테랑' 하도급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공정이 꼬이고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상대방에게서 돌아왔다. 반박하고 맴돌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대화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원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로 생각하는 이유와 원인이 다르면 문제 해결은 시작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서 항상 강조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다르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서로의 처지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 역지사지 한다면 해결책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말처럼 쉽지 않다'는 말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처지를 살필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뒤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호소는 종합건설사가 최근 발주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자공사와 추가공사 정산 등 종합건설사가 발주기관에 하소연하는 내용들을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에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종합건설사가 발주기관 앞에서 '을'이었던 경험을 떠올리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업계도 갑이었던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자재나 장비업체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많을 것이다. 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관리나 적자를 면하고자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가 적정금액을 주려고 해도 덩핑으로 들어오는 전문건설사가 있는 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날 종합과 전문 측 참석자들은 각각 원도급과 하도급, 갑과 을, 대기업 부장급 이하 직원과 중소기업 대표, 20~30년 가량 연배 차이까지 다른 점이 많았다. 어찌 보면 화합하기 어려운 차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에도 건설산업의 선·후배라는 공감대와 서로를 예우하는 분위기는 행사 내내 이어졌다.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해 이해하고자 하면 서로가 보인다. 그렇지 않고 오해를 하고자 하면 한없이 엇갈리게 된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갑이면서 을이다. 어떤 때는 갑으로, 어떤 때는 을로서 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역지사지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갑이었던, 또는 을이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는 것만으로도 역지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